

문 전 대통령 만난 이재명 “明文정당 함께 만들자”

이재명 '명'·문재인 '문'

취임 첫 날 일정 민생·통합행보 당내 민생경제 대책기구 등 지시 윤 대통령에 영수회담 재차 요구 대통령실 “대화의 문 열려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는 29일 '민생·통합'을 앞세운 행보로 취임 첫 일정을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협력할 것은 철저히 먼저 나서서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처음 주재한 최고위 회의에서 “민생을 위한 개혁을 실용적으로 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물가·환율·금리 등을 포함한 어려운 경제 현실, 민생의 위기 앞에서 후퇴를 막고 민생의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에는 민생경제 위기 관련 대책기구와 민주주의 위기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영수회담 개최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퇴행과 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협치와 견제의 강·온 전략 병행 구상 입장을 밝혔다.

또 당의 혁신 방향과 관련해서도 “실력과 실적으로 평가받는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정쟁 정치, 반사이익 정치, 차와 정치와 완전히 결별하겠다. 잡하기 경쟁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전날 취임 일성으로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함에 따라 향후 정부·여당과의 협치 혹은 견제 중 어느 노선에 무게를 실느냐에 관심이 쏠렸

나, 이에 대해 ‘민생’을 중심으로 풀어가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이 같은 ‘영수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그동안 여야 지도부 면담과 관련해서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즉 ‘영수회담’ 대신에 ‘여야 지도부 면담’이란 표현을 쓰면서 우회적으로 영수회담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는 ‘여야 지도부 면담’ 등에 대한 협의 가능성은 열려둔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장 뒷길(백드롭)에는 ‘국민의 삶 :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새 슬로건이 적혔다.

이 대표는 동시에 당내 통합 행보에도 박차를 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지도부와 함께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당무 파악에 바쁜 취임 첫날부터 양산을 찾은 것은 그만큼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친문계를 다독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환담에서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에게 가르침을 청했고,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를 향한 당내 압도적 지지를 언급한 뒤 “민생을 잘 챙겨야 한다. 대안을 마련하는 정치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당내 지지그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은 같다”며 “99%가 같은 지지를 공유하는데, 1% 정도 경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쟁에서 양금이 좀 있어 감동이 부각되는 면이 있는데, 그 1%라도 품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동석한 지도부에서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라며 “친문 그룹과 친문 그룹이 있기 때문에 ‘명(이재명)’과 ‘문(문재인)’을 따서 ‘명문정당’을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첫 일정인 현충원 참배와 최고 위 회의 후 지지자들의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민생·통합 중심의 메시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대한 말을 아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민생을 위한 개혁을 실용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겠다”며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당 대표 산하에 민생경제 위기 관련 대책기구와 민주주의 위기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의원·당원 중지 모은 결론 존중하는 게 맞아” 윤 대통령, 국힘 새 비대위 구성 힘 실어줬다

“野 포함 국회와 함께 일 해나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여당인 국민의힘 혼란 상황과 관련, “저는 우리 당 의원과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충분히 합리적인, 또 당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합당한 결론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 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국익과 여야라는 것이 경쟁도 하지만,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야당을 포함해서 국회와 함께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늘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 빛이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 1000조 원에 육박하고, 물가와 전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도 긴축할 수밖에 없

는 입장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도 다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서민, 어려운 분들(지원), 또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에 돈 쓸 때는 확실히 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과 대구 서문시장을 연이어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여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돕고 정말 고맙다는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제일 어려움을 주는 것이 물가인 만큼 어제 고위 당정 회의에서 추석까지 최소한 추석 성수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1년 전 물가 수준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번 수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피해자와 소상공인에게 추석 전까지 확실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도 대통령으로서 이번 주에 열심히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통령실 정부 비서관 2명 사의...사실상 경질

대통령실 정부수석비서관실 산하 비서관 2명이 동시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수석실 소속 홍지만 정부1비서관과 경윤호 정부2비서관이 이날 오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긴 했으나 사실상 경질성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준석 전 대표 정계를 둘러싼 여론 내홍이 계속되는 와중에 여의도와외의 채널 역할을 맡은 정부 라인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인적 쇄신을 통해 정부 기능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비서관급 잠모진 중폭 교체 검토 및 대통령실

내부의 고강도 감찰과 관련,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집단이 되어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직원들은)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역량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잠모진 ‘수시개편’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A비서관에 대한 인사위원회도 이날 오후 개최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3주 연속 소폭 오름세

리얼미터 조사...긍정평가 33.6%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주 연속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부정평가는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22~26일(8월 4주차)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4%포인트 오른 33.6%로 집계됐

다. 부정 평가는 2.5%포인트 떨어진 63.3%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8월 2주차에 8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30.4%로 소폭 반등한 이후 이번 조사에서 33.6%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올랐다.

부정평가는 8월 1주차 67.8%에서 67.2%, 65.8%, 63.3%로 하락 흐름을 보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정의당 지지층(13.4%P↑), 가정주부(8.6%P↑), 보수층(7.6%P↑), 학생(6.0%P↑)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50대(4.9%P↑), 서울(4.6%P

↑), 자영업(4.5%P↑), 인천·경기(2.8%P↑) 등에서도 오름세를 보였다. 긍정평가는 30대에서는 2.3%포인트 증가했으나 20대에서는 1.2%포인트 감소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1.4%포인트 상승한 39.0%를 기록해 윤 대통령 지지율과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0.6%포인트 상승한 45.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8%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